

건축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Architectural Communities, United We Fall and Divided We Stand?

기나긴 건축계의 통합논의가 무산되었다. 새로운 통합체로서의 한국건축사협회 출현에 대한 한국건축계의 기대는 일순간 무너져 버렸다. 통합 후, 건축의 질적 향상과 보다 나은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건축의 사회 및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역량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축계 전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권익 실현에 앞장서는 단체가 대두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일장춘몽이었다.

통합 실패 후, 각 단체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각 단체들이 통합의 허탈함에 마냥 손 놓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 단체는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기존의 질서와 영역을 유지하고 안주하려 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건축계 전체가 염원했던 바람은 온데 간데 없고 눈앞에 놓인 현실적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축계가 보여왔던 모래알 같은 분열의 틈은 더욱 벌어지기 힘들 것이고 그 결과는 어김없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건축계로 돌아올 것이다. 각 단체들의 통합조차 이루지 못하는 건축계가 어찌 건축계 전체의 핵심 쟁점이나 이해 당사자간에 참여하게 대립하는 법제도 개선 등의 사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또한, 건축계 전체의 민심을 대변하거나 수렴할 일원화된 창구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강하고 심도 있게 건축 정책의 제안이나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거나 제안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건축계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후배 건축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고 전통일까? 건축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은 급변하는데 건축계는 왜 이토록 지지부진하면서 빠른 세상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퇴행적 행보만을 계속하는가!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고, 한국 건축계의 좌표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분열된 모습은 건축사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운명을 후배건축가들에게 남겨 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이젠 그 기나긴 사슬을 끊어야 한다.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으로 업계의 이익 대변의 정도가 아니라 건축정책의 개선이나 발전방안, 획기적인 대안의 제시 등을 진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합 단체의 출현이 절실히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건축계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은 건축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건축계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건축가 스스로의 창작활동을 극대화함으로써 작품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여러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발주방식, 과당경쟁구조, 하도급구조 그리고 최저가낙찰제 등의 열악한 환경들은 지금까지 건축가의 작품활동에 여러모로 제약 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건설회사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열악한 기반이나, 변호사처럼 일한 만큼의 시간당 자문비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취약해진 건축인들의 위상에는 분명 문제가 많다. 명확하게 규정된 설계비 단가조차도 없거나, 4% 수준은 고사하고 2~3%이하의 설계비를 받고 일하는 것이 지금 우리 건축계의 현실이다.

현실은 더욱 냉담하다. 건축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 건축사의 역할과 정체성도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건축관련 이해집단 간의 영역(業域)관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른 전문 분야는 영역의 확장을 하나의 큰 기회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건축계는 어떠한가? 오히려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극단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건축사의 역할이 건축물 도면의 인허가 작업 및 건축물 완성을 위한 조정자 정도로만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분명 건축계는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떤 위기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할진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건축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단체가 단순히 전문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편협적이고 편향적인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거듭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체의 외향적 확대, 즉 덩치 키우기는 터득이 아니다. 통합으로부터, 건축계가 이익 및 가치집단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영역의 정체성을 되찾으며, 나아가 건축계와 관련한 여러 난제들을 풀어갈 단서를 마련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건축계의 통합,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축인의 사명이고 운명이다. 그동안의 통합노고를 시간 낭비로 볼 필요도 없다. 산고의 아픔 없이 어찌 수십 년간의 케케묵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통합 무산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전 건축계의 기대를 아우르고, 통합의 정당성을 설명, 설득하여 전 건축인의 참여 속에 통합을 위한 힘을 결집하는 것이 먼저 일 것이다. 지금이 바로, 다시 한 번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새롭게 짜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본다. ■



박진호 / Park, Jin-ho, HKIRA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약력

- 인하대 학사, UCLA(MI)
- 건축학 석사 및 박사
- 하와이주립대(MI) 조/부 교수(중신교수)